

서울시는

폐교된 공립학교를 활용한 치매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설립하여 주십시오.

치매노인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어 사망하기까지 인간으로써 구실을 못하고 운명하게 됩니다.

또한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세대들의 자식들은 많은 죄의식을 가지며 자신들의 생활능력 외에 요양비용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부모없는 자식이 어디있습니까. 노인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도봉구의 일부 학교는 통폐합을 할 정도로 학생수가 점차 감소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운동장시설, 교정, 교실등의 시설이 있어 요양병원에 부합하는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노인생활공간과 가벼운 운동으로 삶의 질을 연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실정을 보면 인근 주민들이 자기이익을 따져 통폐합을 못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감히 통폐합을 실천하여 인간답게 살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주십시오 .

2022. 02. 02

도봉구 최oo 드림